



행복한 농원

SK이노베이션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 하고 모두 다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는 없을까?’ 이러한 질문은 SK이노베이션이 행복나눔재단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1년 말, 잡초만 무성하던 월곶동의 작은 산 중턱은 각양각색의 초화와 다육식물로 가득 찼습니다. 노령 및 소외계층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했고, 장애인 및 가출 청소년에게는 원예치료도 제공하였습니다. 학교, 어린이집, 관공서 등에 초화를 기부하고, 찾아오는 분들에게는 쉼터를 내어 드리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 모든 것을 통해 자연과 사람에 대해 배우고 행복도 키워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행복한 농원’, SK이노베이션이 지지하는 희망의 사회적 기업입니다.

새로운 사회공헌의 패러다임을 만들어 갑니다



SK이노베이션, 희망의 꽃씨를 심어 행복을 재배하다

차가운 도심 속에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고마운 초화와 다육식물을 키우며 사회적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SK이노베이션과 행복나눔 재단이 설립한 사회적 기업인 행복한 농원입니다. 꽃을 팔기 위해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 꽃을 파는 사회적 경영이념 하에 조경관리 및 초화류 재배를 주 수익사업으로 노령계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농원은 다양하고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황무지에서 행복을 나누는 농원으로

“많은 사람이 나이가 들어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보자” 임직원들의 사내공모전까지 열리면서 해답을 찾기 시작한 SK이노베이션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 가치를 실현하기 농원을 건설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고령화로 인해 일자리가 부족한 사회 문제와 도심 속 부족한 녹지공간문제를 해결하는 최적의 아이템이 농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2011년 10월,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12,000m²의 황무지에 초화와 관목으로 어우러진 ‘행복한 농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이득보다 희망을 추구하는 기업

행복한 농원은 조경을 관리하고 꽃을 재배하여 판매해 수익을 올리는 사업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과 노인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자활교육을 실시하는 공익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언제나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소위 말하는 위기청소년들에게 원예체험을 통해 보람을 느끼게 하고, 환자들에게는 원예치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 후 소득원이 없는 노령층과 소외계층의 일자리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수익보다는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인 행복한 농원, 기존의 단순 기부에서 벗어나 소외 계층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원예치료를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고령화 등 사회문제의 해결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따스한 손으로 행복을 꾸려가다

산업이 발달하면서 상당 부분 기계화가 이루어졌지만, 손에 흙을 묻혀가며 식물을 가꾸는 일은 온전히 사람의 몫입니다. SK이노베이션의 사회적 기업인 '행복한 농원'은 여러 사람의 따스한 손을 빌려 행복한 일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쉼터와 전시실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에 건전한 여가 문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유관 단체와 협력사업을 통해 초화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시설 9개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취약계층의 정서적 안정과 원예치료, 직업체험 등 다각적으로 사회 서비스 사업 및 공헌 활동으로 사회적 기업의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행복한 농원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지역 내의 취약계층을 위해 자활교육을 실시하는 공익사업을 진행하는 곳으로써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이로써 판매하는 사람들은 직업도 얻고 교육도 받을 수 있어 행복하고, 구매자들은 예쁜 화분을 구매하면서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어 행복해지는, 말 그대로 행복한 농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수 사회적 기업의 의무를 다하다

추후 행복한 농원은 2014년 상반기 인증 사회적 기업을 목표로 하며 고용과 매출 사회적 가치창출을 완수함으로써 순수 사회적 기업 본연의 의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수익 구조 개선작업으로 전문화된 초종의 소품종을 다양 생산화하여 생산 원가를 절감하고,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화분관리 용역사업, 식물 거래 장터 개설 등의 신규사업에 진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원예체험학습장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울려 구성원이 만족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면서 모두가 행복한 농원이 완성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SK이노베이션, 사회적 기업에 날개를 달아주다

국내 몇몇 사회적 기업들이 기업의 지원이 끝나면 자생 능력을 갖추지 못해 도태되고 있습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진정 사회적 기업 본연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만이 아닌 영구 존속할 수 있는 진로 설정과 경영지도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농원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매출 증대 및 경영 전반에 큰 지원을 받고 있으며, 정기적 미팅을 통해 중장기 발전 계획으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SK이노베이션에서는 사회적 기업인 '행복한 농원'을 직접 운영하고 지원하면서 물심양면으로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꿈을 실현해나간다는 마음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더 필요한 시점입니다.

